



[뉴스]
모더나·안센 합류
상반기 백신접종 목표
1400만명으로 상향
02

5월31일 Market Index			
↑ 코스피	3203.92	↑ 코스닥	981.78
	(+15.19)		(+4.32)
↑ 금리 (연고채 3년)	1.227	↓ 환율 (원/달러)	1110.90
	(+0.065)		(-4.60)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21년 6월 1일 화요일

현대차, '전 과정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車 '온실가스 제로' 풀악셀

車업계, 친환경 체질개선 꾀걸음
정의선, 탄소중립 장기플랜 내놔
車 전 과정 친환경기술 개발 속도
23개 전기차, 수소차 보급 추진
아우디·벤츠 등도 탄소감축 집중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24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특별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대응에 맞춰 기업의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인다.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친환경차 개발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계 말형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전과정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향후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솔루션 제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만큼 업계는 정의선 회장 방식의 친환경 경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제조 단계부터 리사이클링 되는 과정까지 모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정의선 회장의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수만 개의 부품이 사용될 뿐 아니라 운영 중에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또 사용 주기가 끝나면 발생하는 폐기물 역시 큰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첫 적용한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출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아 EV6와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를 출시한다. 현대차는 올해 20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출시하는 등 상용차 시장에도 친환경차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의 본격 생산에 돌입하면서 수소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 차량 판매를 위해 2025년까지 23개 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고 넥쏘 후속 모델 등 다양한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웃 갈아입은 광화문 글판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광화문글판이 <여름의 할 일> 문구가 건물 외벽에 내걸려 있다. /뉴시스

'737맥스' 도입 앞둔 제주항공 적자 늪에 안전 우려 '설상가상'

보잉과 2026년까지 50대 도입 계약
고정비만 늘어 경영난 가중 불가피

LCC(저비용항공사)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해 온 제주항공이 사실상 737맥스를 계약대로 도입할 수밖에 없어 경영난이 가중될 처지에 놓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 50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제주항공이 2018년 11월 보잉과 이 같은 구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737맥스 항공기 50대를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737맥스가 운항 안전성 관련 지속해서 이슈가 제기돼 왔고, 동시에 제주항공도 현재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항공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도 국내선·국제선의 잠정 운항 중단으로 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737맥스를 들여오게 될 경우 운항 안전성, 노선의 운항 중단 등을 이유로 외려 고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737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2019년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등 두 차례의 추락사고로 약 20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던 기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이 재개됐지만, 올해 3월 에도 기계 결함으로 추정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당 계약 관련 "아직 변동이 있거나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맥스 이슈가 있었다 보니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며 "계약대수는 50대였는데, 아직 구체적인 (연도별) 도입 대수 계획은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미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원칙상 계약을 물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이 737맥스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경영난 가중은 사실상 불가피해진다. 제주항공은 이미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손실 3358억 원을 냈고, 올해 1분기에도 역시 -860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항공기는 띄우지 않아도 고정비용이 발생해 보유 항공기 대수가 늘어날수록 적자 폭이 확대된다.

또한 제주항공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보유 항공기 중 일부도 그나마 주기해놓은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총 4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 운항에 투입되고 있는 항공기는 25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17대는 띄우지 못해 항공기 임대료 등 적자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모기업인 AK홀딩스도 당장 제주항공에 자금적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K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 39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346억 원 대비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금리인상 카운트다운... 시장은 이미 先반영

금융 이슈리포트

제로금리 시대 끝

이주열 한은총재, 금리인상 시사
대출금리 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

금리가 0%대인 '제로금리'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기준금리는 여전히 0.5%로 동결됐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금리인상이 반영됐고, 중앙은행 역시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지 1여년 만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점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당분간'이 얼마나 될 지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

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결정했다. 금통위는 그 이후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기존 0.5%로 동결했다.

◆시장금리 이미 '들썩'...제로금리 역사속으로

시장금리는 이미 금리인상이 반영된 상태다. 제로금리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예금금리 정도며, 채권금리와 이를 반영한 대출금리는 모두 뛰었다.

한은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월 2.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

금통위 이후 금리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금리도 들썩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했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그에 맞춰 이례적인 조치를 정상화하는 건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백신접종 속도가 금리인상의 키?

금리인상에 불을 지핀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지만 우려보다는 선방한 수준이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5월 마지막날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400명대 /사진 뉴시스
▲ 내일 AZ 87만9000회분 공급... 모더나 5만5000회분 도착

▲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피해 눈덩이... '4조 육박'
▲ '라임 솔집대' 검사 3명... 법무부, 대검에 징계청구 요청



▲ 서욱 "국가원수에 대한 北 예의 없는 언행 유감스럽다" /사진 뉴시스
▲ 野 "국민 무시" vs 與 "적반하장"... 김오수 단독 채택 공방